

성경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의 화행론적 접근 -출애굽기 33:12-23과 관련하여*

A Speech-act Theoretic Approach to Biblical Interpretation - The Text of Exodus 33:12-23

김상아 (Sangah Kim)**

ABSTRACT

As a reader we often encounter ambiguous passages in the Bible which came from the issues of translation related to the linguistic problems 'there and then' and interpreting biblical texts. This paper concerns the latter, hermeneutical issues dealing with a methodology and a technique for interpreting tex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linguistic approach as a methodology of hermeneutics. The Book of Exodus is typically understood as narrative genre characterized by characters who interplay with one another and events generated in the dynamic interaction of characters. It shows the features of discourse, the exchange of words between more than two participants and its structure which consists of sequences of speech acts. The participants has to rely on linguistic features and has to convey the intended meaning simultaneously using their utterances while abiding by conversational maxim. Thus this paper will apply speech act theory to the analysis of discourse in Exodus 33:12-23 known as ambiguous passages. The analysis shows that Moses used various request strategies by reference to the hearer's willingness and by employing indirect speech acts to minimize the imposition of the hearer and show politeness as well.

Key words: ambiguous passages in Exodus, biblical interpretation, linguistic approach

* 2023년 5월 12일 접수, 6월 5일 최종수정, 6월 7일 게재확정

** 한양대학교(Hanyang University)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dearie98@hanmail.net

I. 들어가기

성경에는 난해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텍스트의 ‘번역’과 ‘해석’이라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으로부터 기인한다. 전자의 경우는 텍스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당시 ‘언어 사용’과 관련한 형태론적·통사론적·의미론적인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의 부족으로부터 기인한 시원(始原)적인 성격의 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는 성경 텍스트의 올바른 이해와 관련된 원칙과 방법론에 관한 해석학적인 문제(Hermeneutical issues)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후자와 관련되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의 한 가지로서 언어학적인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출애굽기 본문 가운데 맥락의 흐름상 난해한 장면으로 꼽히는 부분인 ‘모세의 중보 기도’라 불리는 텍스트 중 33장 12-23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텍스트가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모세의 세 번에 걸친 요청 내용 간의 연관성과 그 의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논의들 중 출애굽기 33장 12-23절과 관련한 해석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논의는 없지만, 부분적인 해석을 참조할 수 있는 논의들이 있다. 후술할 국외의 두 논의는 출애굽기 전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과 신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방식으로 논한다. 먼저 Widmer(2004: 156-158)에서는 이러한 모세의 요청에 대하여 ‘아는 것(knowing)’에서 ‘보이는 것(showing)’으로의 어조의 전환이라고 명하면서 모세가 이미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함께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요청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속성인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논리적인 사고 과정에서 모세의 요청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O’Brien(2012: 27-28)에서는 모세의 요청의 주된 실현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될 당시에 하나님의 현현의 사건(출 19:18)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넉넉히 추측하면서 이는 관계 회복의 ‘신호’로서 요청된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국내의 논의인 박철현(2014)에서는 내러티브 방법론과 텍스트 구조, 히브리 문학 기법을 모두 살피면서 본문의 해석을 시도하였는데, 24장 12절부터 40장 38절의 텍스트를 교차대구법(chiasm)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32-34장의 ‘황금 송아지 이야기’가 그 안에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게 되면 성막 이야기와 황금 송아지 이야기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므로 32-34장의 텍스트는 강조되는 효과를 얻는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모세의 3번의 중보 기도와 관련하여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아주 컸기 때문에 황금 송아지 제작 이전으로 다시 원상 복귀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해서 33장의 12-23절의 내용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의 기도 전략과 관련하여서는 그가 여호와가 보여주시는 자비의 ‘작은 틈을 보았다’고 설명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앞선 논의들에서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주로 이야기의 흐름에 따른 원문의

표현 방식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은 33장 12-23절에서 이어지는 모세의 요청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점을 남게 한다. 특히 첫째로 3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구가 계속 이어진 이유이다. 둘째로는 33장 18절의 모세의 요청은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인데 이러한 요청이 인간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도 모세가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전의 분석 방법들은 발화 행위의 출발점인 화자에 중점을 둔 일방향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사소통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 과정에서의 효과를 간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해석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언어학적 방법 중에서도 화행론적 접근을 통하여 본문의 원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출애굽기 32-34장의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묶일 수 있는 이야기로 보고 개인 번역을 한 후 화행론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이때 내레이터의 진술은 역동적인 행위 참여로 간주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언어적 행위와 비언어적 행위로나타나는 역동적인 행위 참여만을 집중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겠다. 따라서 텍스트에 나타나는 등장인물 간의 상호작용의 구조를 명시화한 후 그 맥락의 흐름에 따라 각 세부 텍스트들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분석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모세의 상호작용에 관한 부분은 개인 번역을 제시하여 언어적인 표현을 살필 것이다.

II. 성경 텍스트 해석 방법으로서의 화행론적 접근

Wittgenstein이 언어의 의미를 사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이디어를 주창한 이래로 사용 이론(Use Theory)은 언어 분석 철학자인 Austin에 의해 수용되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본격적으로 언어를 체계가 아닌 사용에 기반을 둔 ‘행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화행 이론이 1962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Austin(1962)은 실제 언어의 사용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언어 행위’의 관점에서 언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화행의 개념과 이에 대한 분석은 언어에 있어서의 다른 차원의 새로운 발견이었는데 언어 형식으로 수행되는 언어 내용의 측면에서 중전의 단어 의미와는 다른 특성이 그 이면에 존재함을 보여 줌에 있어서 그러했다(장경희, 1998:45). 이 이론은 제자인 Searle(1969, 1976, 1979)에 의해서 보완되고 수정되면서 언어 행위를 발화 행위(locutionary act), 발화행위를 통해 화자가 전달하는 의도인 발화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 그리고 발화행위에 따라 세계에 특정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발화효과 행위(perlocutionary act)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Searle은 발화수반 행위를 발화수반 행위의 요점인 화자의 의도와 언어와 세계 사이의 관계성의 방향, 심리적 상태, 내용을 준거로 삼아 진술 화행, 정표 화행, 명령 화행, 약속 화행, 선언 화행의 다섯 가지로 하위 분류하였다. 각각의 화행을 살펴보면 진술 화행은 화자의 참과 거짓에 대한 가치 판단을 수반한 화행이며, 정표 화행은 화자의 감정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화행이다. 명령 화행은 화자가 청자에게 명령하거나 요구 또는 제안을 하는 화행이며, 약속 화행은 미래의 행위에 대하여 화자가 약속이나 맹세를 하는 의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선언 화행은 화자가 특정한 환경에서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을 때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화행으로 판결, 선고 등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화행은 Searle의 분류 외에도 사용 언어와 화자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하위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초기 화행 이론이 화자의 단일한 발화 행위에 집중하였다면, 1970년대 이후로는 이에 대한 반성적 시각과 더불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호작용 안에서 바라보려는 관점 즉,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화행 이론이 텍스트와 담화의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1970년 중반 이후 대화 분석론이 유럽 언어학계에서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발전하게 되었다(박용익, 2001:15). 이에 따라 대화의 분석 층위와 화행 연속체를 통해서 화행 간의 관계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화 참여자의 발화와 전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화행이 간단히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 언어의 무한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문장 유형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기능만이 화행으로 직접적인 전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리는 ‘밥을 먹었니?’라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하여 판정 의문문이라는 질문 화행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이해의 과정에 작용하여 인사 화행이라고 판단하기도 하며, 때로는 ‘밥을 먹지 않았으면 함께 밥을 먹자’라는 요청 화행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만일 의문문의 형식을 가진 질문 화행으로 화자와 청자 사이의 동일한 이해를 공유한다면 ‘밥을 먹었니?’라는 발화는 ‘직접화행’으로 수행된 발화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의 경우는 발화된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이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간접화행’으로 수행된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의 과정에서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청자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행동사의 사용이다. 결혼식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로써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는 성혼 선언문의 경우도 ‘선언하다’라는 명시적인 수행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선언 화행을 수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련의 화행들은 세계를 향하여 각기 다른 발화효과 행위로서 청자의 감정, 생각, 행동의 변화뿐 아니라 의사소통 참여자의 환경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여타의 텍스트들과는 달리 성경 텍스트

에서는 이러한 발화효과 행위들이 갖는 중요도가 크다. 그러한 까닭에 화행론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일견 하나님의 일방향적인 선포들이 다수를 이루는 듯 보이는 구약성경 텍스트들의 많은 부분이 발화수반 행위로서 하나님의 바라심을 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람들과 세계에 영향을 미친 발화효과 행위들에 관하여서도 증거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출애굽기 텍스트는 내러티브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사건들이 전개되어 가는 특징을 가진다. 바꾸어 말하면 두 명 이상의 구체적 대화 참여자가 청자와 화자의 역할을 서로 바꾸어 가며 언어적인 발화의 수행이 활발히 나타나는 화행 연속체로서의 ‘대화’의 형식이 잘 드러난 텍스트이다. 이러한 특징의 텍스트에 화행론적 분석을 적용하게 되면 미시적·거시적인 상호작용이 보다 명료히 드러남으로 인하여 난해 구절의 해석과 본문 텍스트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출애굽기 32장 11-13절과 31-32절, 그리고 33장의 12-18절은 소위 ‘모세의 중보 기도’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러한 명명은 일견 화자로서의 모세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일방향적인 소통으로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기도에 대한 독자들의 편향된 이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왔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과 모세와의 의사소통 작용이라는 맥락하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에도 본문의 바른 해석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적인 관점에서의 본문 접근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

화행 이론은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언어 사용자들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하는 분야이므로 맥락은 화행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앞서 이루어진 담화의 맥락에 대한 정보는 대화 참여자의 상호작용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로서 대화 참여자들에게 사용되고 해석된다. 더불어서 2차 독자인 우리들에게는 그 담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해석을 가능케 하는 단서 정보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는 정경론적인 접근 방법으로서의 성경 텍스트 해석의 관점과 맞물릴 수 있다. 성경 텍스트들은 정경의 전체 내용과 부분적인 내용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서 해석에 있어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해당 구절의 장면은 ‘언약의 파기와 갱신’에 관한 이야기 속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위하여 그 전체 이야기인 출애굽기 32-34장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

III. 화행론적 접근을 통한 33:12-23의 해석

성경 본문의 원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비평적 방법을 통해 성경 원문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고려하여 원문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원독자인 1차 독자에게 어떠한 의미로 전해졌는가를 조금 더 상세히 판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BibleWorks 9 프로그램을 이용하되, 본문 분석이라는 특성상 형식적 등가 번역을 시도한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개인 번역을 할 것이다. 이에 히브리어 성경 중 레닌그라드 사본(BibleWorks 버전 약자: WTT)을 선택하여 번역을 하되 이때 참조하는 번역본으로는 이 사본을 등가 번역한 Young's Literal Translation¹, 헬라어 번역본인 칠십인역(Rahlfs edition, BibleWorks 버전 약자: LXT)²과 이를 등가 번역한 Brenton의 칠십인역 번역(BibleWorks 버전 약자: LXE)³ 그리고 한글 개역개정 4가지를 선택하였다. 또한 번역 내용 중 괄호로 표시한 부분은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의 문장 구조상 원활한 이해를 위하여 연구자가 덧붙인 것이다. 지면상의 이유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에 대한 번역 내용만을 본고에서는 표로 제시하였다. 히브리어의 해석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분위기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최대한 형식적 등가를 지향하였으며 수용 언어인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도 감안하였다.

1.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본 '언약 파기와 갱신' 이야기의 구조

'언약의 파기와 갱신'이라는 주제의 이야기에 속하는 출애굽기 32-3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32장 1-6절의 황금 송아지 사건이라는 배교적 상황의 맥락하에 언약의 파기라는 문제 상황 속에서 32장 7절부터 33장 23절까지의 상호작용이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자들은 사전 정보로서 다음과 같은 텍스트의 맥락 정보를 알고 있다: 1)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 완료(24:1-11), 2)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실(24:12-14), 그리고 3) 이 기간 내에 일어난 배교 행위(황금 송아지 사건)의 완료(32:1-6). 그러므로 이야기의 시작 지점부터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취하실 것인가와 관련하여 독자들의 긴장감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 J. N. Young, The English Young's Literal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1862/1887/1898).

2) LXX Septuaginta, edited by Alfred Rahlfs, (1935).

3)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by Sir Lancelot C. L. Brenton, (1851/1884).

Table 1. Prior contextual information

맥락 정보	공간	해당 부분 및 내용
맥락 1	산 아래	19-24장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
맥락 2	산 위	24:12-18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간 정황
맥락 3	산 아래	32:1-6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

분석 텍스트인 출애굽기 33장 12-23절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전술한 대로 전체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전체 이야기를 내용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구분의 근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상호작용의 시간 변화이다. 연속된 사건들의 시간 간격에 대한 언어적인 전환 표지의 출현, 혹은 동시 동작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문법 형태-예를 들면 wayyiqtol 구문 등-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의 장소의 변화, 등장인물들의 변화이며 세 번째 기준은 내레이터가 등장하여 진술하는 경우이다. 내용 단락의 구분 후에는 다시 상호작용의 주도권을 가진 여호와와 반응을 중심으로 대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개의 하위 부분으로 나누었다.

Table 2. Major parts on the basis of interaction between participants in Exod 32-34

상호작용	공간	해당 구절 및 내용	대화 참여자	
첫 번째 상호작용	산 위	32:7-13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I	하나님, 모세	
		32:14 내레이터 설명: 여호와의 반응	하나님, 이스라엘	
	산 아래	32:15-30 모세 주도적 상호작용	32:15-19	모세, 여호수아
			32:20-29	모세, 이스라엘, 아론, 레위자손
		32:30	모세, 이스라엘	
두 번째 상호작용	산 위	32:31-34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II	하나님, 모세	
	산 아래	32:35 내레이터의 상황 보도	하나님, 이스라엘	
세 번째 상호작용	산 위	33:1-6 하나님 명령-이스라엘 반응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	
	산 아래			
	산 아래	33:7-11 내레이터 보도: 만남의 장막		
	?	33:12-23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III	하나님, 모세	
	산 위	34:1-28 언약 갱신 시작	하나님, 모세	
	산 아래	34:29-35 새 증거 돌판과 하산	모세, 이스라엘	

4) 해당 텍스트의 상호작용은 산 위인지 산 아래인지 장소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특히 33장 7-11절의 ‘만남의 장막’에 대한 텍스트의 경우, 연대기적 서술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지는 텍스트의 구체적인 장소의 위치를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물음표로 처리하였다.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는 세 번째 상호작용의 후반부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상호작용 부분과 두 번째 상호작용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상호작용의 전반부(33:1-11)는 분석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한 맥락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화행론적 접근을 통해 논한 뒤 33장 12-23절을 논하겠다.

2. 화행론적 접근을 통한 분석 텍스트의 맥락 이해

(1) 첫 번째 상호작용의 분석

첫 번째 상호작용 부분은 공간의 변화와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대화 참여자들에 따라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Figure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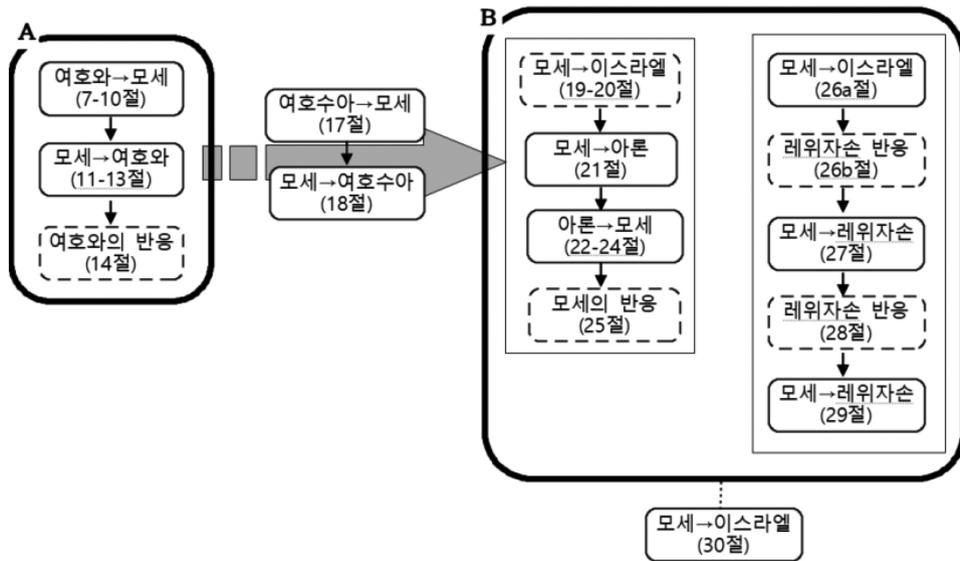


Figure 1. Analysis of Interaction in Exod 32:7-30

실선은 언어적 행위들인 발화 행위로 나타나는 텍스트를 표시한 것이며, 점선은 비언어적 행위로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텍스트이다. 산 위에서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어 다음 발화의 말차례(turn)는 모세로 이어지고, 여호와의 비언어적 반응으로 연속된다(A). 그리고 화살표로 표시된 여호와의 말씀의 발화효과 행위는 산 아래의 연속적인 행위들의 연속체(B)를 이루어 낸다. 이러한 A와 B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을 함의 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의도들에 대한 모세의 해석 과정으로 나타난 행위들을 보여 준다. 그 가운데 텍스트의 연결 부분으로서 ‘산 위’라는 위치에서 ‘산

아래'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호와와 모세의 대화가 나온다. 더불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세부적인 상호작용 후에 나타나는 텍스트인 30절은 담화표지인 וְיָמָּ (‘‘그리고 되었다’’, 출 32:30)와 시간 변화를 알리는 מָחָּ (‘‘다음 날’’, 출 32:30)가 더불어서 나타남으로 전 단락과의 내용적 구분을 문법적 장치로 표시한다. 즉, 30절의 텍스트는 그다음 단계의 상호작용으로 넘어가는 연결 지점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Translation of Exodus 32:7-13

화자	발화 내용	
여호와	32:7-8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라, 내려가라. 왜냐하면 이집트 땅으로부터 네가 데리고 나온 너의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빠르게 내가 그들에게 지시한 그 길로부터 벗어났다. 그들이 그들을 위해 송아지 주조물을 만들고, 그것을 향해 그들이 절하고 그것을 향해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너희들을 데리고 나온 너희들의 신이라. 이스라엘아’ (하였다.)
	32:9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들(וְיָמָּ מִצְּ)을 보았다. 그리고 주목하라. 그는(וְיָמָּ) 목이 굳은 백성이다.
	32:10	그러므로 이제 나를 그냥 두라. 그들 가운데 나의 진노가 불이 붙었고, 그들을 끝낼 것이다. 그리고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모세	32:11-13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간청했다. 그가 말했다. “여호와여, 왜 당신이 이집트 땅으로부터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데리고 나오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진노가 불이 붙었습니까? 애굽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말하기를 ‘그(여호와)가 악함 가운데 그들을 그 산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 지면으로부터 끝내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할 것입니다.) 불타는 당신의 진노로부터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악함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겨 주십시오. 당신이 당신 안에서 그들을 위해 맹세하셨던 당신의 종들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한 이 모든 땅을 그들이 영원히 소유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먼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명령문의 형식을 가진 명령 화행으로 먼저 시작된다; “너는 가라, 내려가라(וְיָמָּ)”.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문으로 서두를 시작하신 것은 모세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신다(10절 OYqt형식⁵, “그들을 끝낼 것이다”: מְאַחַּ).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진멸과 모세의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행위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7절의 명령문 바로 다음의 문장에서 여호

5) 10절의 해당 부분은 주어나 다른 통사 구성요소들이 Yiqtol 앞에 붙어 있지 않으므로 OYqt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OYqt은 겐셋니우스 문법에 따르면 양태를 나타내게 되므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의 변화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백성’ 즉,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7절 이후로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변함없이 지칭해 오셨기 때문에 더 주목할 만하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명령문의 의미는 맥락을 따라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고 자리매김을 한 이상,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진멸을 막기 위한 막대한 책임이 부여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계신 것이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황금 송아지 배교 사건은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 붙게 되었다.⁶ 언약 파기의 상황은 ‘부패함(7절)’,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길을 벗어난 것(8절)’, ‘목이 굳은 것(9절)’으로 표현된다. 이제 막 체결된 언약은 파기될 위협에 처하였고 언약의 파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시급하다. 그래서 모세는 11-13절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관계성을 연결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이라는 특히 언약과 관련된 족장들의 이름을 들면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언급하는 것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의 일부였음을 상기시켜 드리는 전략과 함께 이를 여호와와 속성인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요청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에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하셨던 마음을 돌이키시는 반응을 보이신다(14절).

15절부터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한 요청 행위는 모세의 중재 역할을 사용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발화효과를 성공적으로 거두기 위한 방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청자인 모세에게 문맥의 추론을 요구하는 화행 연속체를 사용하셨으며(7-10절), 모세는 자신의 인식 체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제 저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모세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데, 15-16절에 모세의 손에 들린 돌판에 독자의 시선을 돌리게 한다. 이는 모세의 부재 상황에 대한 32장 1절의 이스라엘 백성의 진술과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자의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반한 계명이 바로 그 돌판에 쓰여 있는 것임을 독자들로 하여금 상기시킨다. 이어지는 모세의 돌판을 깨는 행위는 언약 파기를 암시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한다. 그 이유는 1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였던 ‘나의 진노가 불이 붙었다’(אֵשׁ־אֲנִי)라는 표현이 19절 모세의 분

6) Joo, S. (2006)는 신명기서와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분석하였는데 אֵשׁ־אֲנִי라는 표현이 사용된 맥락을 연구한 부분을 보면 특히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신성(divine)의 진노를 받는 상황하에서 해당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노를 표현할 때에는 ‘모세의 진노가 불이 붙었다’(הַצִּדְוֹן הַלֵּוִי)라고 주어만 바꾸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재자적 행위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한다(20절). 이 행위는 1) 그들이 신이라고 경배하였던 대상이 한낱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가공의 것임을 인지하게 하였을 것이며, 2) 죄의 결과물을 가시적으로 제거하였다. 두 번째로 모세가 행동으로 옮긴 것은 아론을 문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 아론과 훌에게 지도자로서 책임을 맡겼기 때문이다(24:14). 그러나 아론의 발언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 집단과 분리시킴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22절에 나타난다(22절, ‘이 백성’: הַעָמָּה, וְאֵינִי). 이는 또한 독자들에게 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킴으로 대비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언급하시면서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 중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부패하였음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론의 발화(22절)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아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노가 멈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세는 배교 행위의 근원에 아론의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억제되지 않은 속성(טָמֵ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25절). 죄의 결과물은 가시적으로 제거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율법의 위반은 계속될 소지가 존재하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이 백성’(9절)일 뿐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세가 레위 자손을 통하여 삼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한 것은 학자들마다 해석은 분분하지만,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문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고에서는 제안한다. 즉, 모세의 그러한 행위는 25절에 그가 죄성이 발현되는 마음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26-28절의 행위가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자손들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행위들을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되는 해결 방안의 한 가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30절과 같이 담화표지 הַעַתָּה! (‘그리고 이제’)를 사용하여 청자의 이목을 집중시켜 중요한 문제인 ‘이스라엘의 속죄’, 다시 말하면 언약의 파기를 멈추게 하기 위해 다시금 여호와께 간청드리기 위해 올라가겠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모세는 그가 이해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발화효과 행위를 ‘중재자로서’ 행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이는 31절의 표현 הֲבֵנָה! (‘돌아왔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Table 3 참조).

(2) 두 번째 상호작용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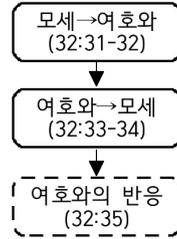


Figure 2. Analysis of Interaction in Exod 32:31-35

두 번째 상호작용은 모세와 여호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텍스트가 주를 이루는데, 이제는 모세의 발화 순서가 먼저 시작된다. 그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의도대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올라왔기 때문이다.

Table 4. Translation of Exodus 32:31-35

화자	발화 내용	
모세	32:31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וָשׁוּב). 그리고 말했다. “아, 이 백성이 그들을 위해 금으로 된 신을 만드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32:32	그렇지만 이제(הַיּוֹם) 만일 그들의 죄를 들(/취할) 수 있다면,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기록하신 책으로부터 부디 나를 지워 주십시오.”
여호와	32:33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죄를 범하는 자는 나의 책으로부터 내가 그를 지울 것이다.”
	32:34	이제(הַיּוֹם) 가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라. 주목하라(הִנֵּה). 나의 사자가 너의 앞에 갈 것이다. 그러나 값은 날에 내가 그들 위에 그들의 죄를 값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배역 행위를 한마디로 진술한다(31절). 여기서 그는 죄의 내용과 이를 ‘큰 죄(הַגְּדֹלָה הַחַטָּאת)’라고 명명함으로써 죄의 심각성을 표현한다. 32절에서는 여호와의 의도를 자신이 이해하고 행한 중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제’는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만일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여호와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을 지워달라고 요청한다. 이 또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다만 여기에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최근의 견해들이다(박철현, 2014: 274). 이에 대한 해석은 모세의 발화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명제로부터 유추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여호와께 범죄

한 자는(p) 여호와와 책에서 지워진다(q)’라고 하는 명제(proposition)에 기반하여 볼 때, 모세가 자신을 p 의 범주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넣어 성립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모세는 아론과는 다른 범주의 ‘마음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하였고(22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

이에 대한 여호와와의 응답은 모세가 전제로 하는 명제를 여호와 자신을 주어로 넣어 재(再)진술하는 것이었다(33절).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와의 말씀이 모세의 요청의 수락이나 거부의 여부 혹은 모세의 발언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닌 모세의 전제를 다시금 재확인시키는 것에 중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명제는 동일한 내용을 두 번 진술하여 강조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저자가 독자들에게 언급하기를 원하는 내용-토라의 준수와 어김에 관련된 것, 더 나아가 먼 언약의 지속과 파기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1)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서, 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명령하신다(34절). 이제 다시금 모세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해야 한다. 그러나 죄는 죄의 대가가 치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신적인 힘을 가지고 산 아래의 세상에 영향을 미치어 낸다(35절). 여기에서 저자가 마치 아론의 태도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아론이 만든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든 그 백성’. 이는 22절의 아론의 말과 다시금 대비를 이루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분리시키지 않으셨다는 점과 황금 송아지는 아론의 지도하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지도자로 세워진 자가 가진 책임감의 무게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세 번째 상호작용의 전반부 분석

세 번째 상호작용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한다. 앞의 상호작용들과는 달리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와서 전하는 중재적 과정이 나타나는 텍스트들은 생략되었다. 이는 이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르며 사건의 긴박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함의한다. 33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정보와 함께 그 발화의 내용에 대한 직접화법의 기술 후 바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도하는 텍스트가 WayX 구조⁷ 연결되는 방식으로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내용의 시작을 알린다. 그 결과 [여호와-모세-이스

7) 33장 1절의 וַיְהִי כִּי יִשְׁמַע יְהוָה אֶת-קוֹל מֹשֶׁ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를 보면 wayyigtol로 시작하면서 주어가 함께 나타나는데 히브리어 구문론에 따르면 이러한 문장을 WayX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본다. WayX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표지로 기능한다.

라엘)의 관계 구도가 좀 더 명확하게 부각되어 나타난다. 7-11절에는 ‘만남의 장막’에 관한 텍스트 부분이 들어있다. 여기에서의 기술 방식은 종전의 등장인물들의 직접화법이 아닌 내레이터가 상황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방식으로 기술된다.

Table 5. Translation of Exodus 33:1-6

화자	발화 내용	
여호와 → 모세 (→ 이스라엘)	33: 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여기로부터 너와 네가 이집트 땅으로부터 데리고 나온 그 백성은 올라가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가 말하기를 ‘네 자손에게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라고 한) 그 땅으로! 그리고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낼 것이다. 또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몰아낼 것이다. 젃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 가운데 내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 길(안)에서 끝내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 반응	33:4	그리고 그 백성이 이 악한 말씀을 들었다. 그러자 그들이 애통해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장신구를 자신 위에 하지 않았다.
여호와 → 모세 (→ 이스라엘)	33:5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 한순간에 네 가운데로 내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끝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의 위로부터 너의 장신구를 내려라. 그러면 너에게 무엇을 할지 내가 알 것이다.”
이스라엘 반응	33:6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벗었다.

33장 1절부터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 화행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모세에게 요청되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기를 ‘네(모세)가 이집트 땅으로부터 데리고 나온 그 백성’이라고 하신다. 그러나 그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32:13)을 경청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을 여전히 이행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레닌 그라드 사본의 출애굽기 전반부(출 2:24-25)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새로운 ‘나라’로 구성되게 되는 시발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눈을 돌리신 것-직역하면 ‘고통의 소리를 듣고 보고 아신 것’-의 이유는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로 이어진 중요한 근간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시내산 언약이 유보된 상태인지 파기된 상태인지에 대한 의문이 독자들에게 제기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

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명하시되(1절), 당신께서는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3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굳은 백성이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신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지금까지의 모세의 중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운 속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려’ 당신과의 위험한 동행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발화 가운데 사용된 히브리어 문형을 보면 알 수 있다(Yiqtol 형식: “너희 가운데 내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text{אֲנִי לֹא אֶעֱלֶה בְּכֵם}$).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그것은 다시 행동의 변화를 연쇄적으로 일으켰다. 먼저 그들의 감정적 반응은 ‘애통함’이었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대한 반응임을 감안해 볼 때 그 애통함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시지 않으심’에 대한 애통함이자, 그 근원에 있는 그들 자신 안의 죄성-목이 굳은 속성-에 대한 애통함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장신구를 그들의 몸에 하지 않았다. ‘장신구(קַדְשָׁיִם)’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그것 자체가 유대인의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견해도 있고, 혹은 미드라쉬 전승에 따르면 검과 왕관이라는 견해(I. Zolli, 1939: 72), 또는 고대 근동의 우상이었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증은 없으므로 명확한 정의를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만 본문상에서는 애통함과 장신구를 하지 않는 행위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그들의 감정의 변화는 그들 개개인의 어떠한 행동을 유발시켰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뒤이어 여호와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5절). 그런데 흥미롭게도 3절의 말씀이 중복되어 나타난다. 앞의 여호와와의 말씀(1-3절)이 명령 화행(1절)과 진술 화행(2,3절)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5절의 여호와와의 말씀은 진술 화행-3절과 유사하되 발전된 형태-과 새로운 요구가 담긴 명령 화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담화표지 וַיֹּאמֶר 와 함께 쓰인 5절은 주화행으로 명령 화행이며, 진술 화행은 이에 대한 발화수반력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한다. 그런데 여호와와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4절에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적 기법 중 히브리어의 수사적 특징인 반복법의 사용으로 이해해야 한다⁸. 그러므로 모세를 중재자로 한 여호와와

8) 혹자는 이를 하나님의 ‘자비의 틈’의 해석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명령 화행은 명제내용 조건(content condition) 자체가 미래의 청자의 행위와 관련하기 때문에 4절에 이미 이스라엘이 한 행위에 대해서 다시금 요청하시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발화 자체가 명령 화행이 아닌 일종의 특수한 간접 화행으로 보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식구를 떼는 행위를 보시면서도 이것을 다시금 일부러 짐짓 모르는 척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해석하는 접근도 모순이 있다고 본다. 그러한 화법은 인간에게는 가능한 ‘개성 있는 말 습관’ 정도로 해석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다수의 독자들을 생각해 볼 때는 수용 가능성의 정상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심각한 어폐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어법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반어법의 주된 기능은 명제 내용을 강조하여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반어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너는 절대로 장신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의 강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현 관계에서는 ‘장신구를 떼는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신구 착용’이라는 상징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굳은 속성과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일례로 이사야서 3장 16-21절의 텍스트를 보면, 장신구는 치장, 사치, 물질 지상주의 등을 가리키는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 중 하나로 나타남을 생각해 볼 때 장신구에 대한 구약성경 내 텍스트들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절은 4절의 반복으로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한 것이지만 특히 장소 정보가 부가된다.

출애굽기 32-34장의 주제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에 33장 7-11절의 만남의 장막 텍스트가 세 번째 상호작용 안에 배치된 이유는 더욱 명확해진다. 편집비평학자들은 연대기적 배열이 아니라는 것에 치중하여 논의의 주안점으로 삼지만, 이것은 주제적 연결성에 의한 텍스트 배열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앞서 살펴본 대로 첫 번째 상호작용과 두 번째 상호작용에서 모세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언약 파기의 갈등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장막에 관한 텍스트는 진 밖의 장막과 그것을 자신들의 장막 문에 서서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림으로 죄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적 거리의 발생을 강조하며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저자는 이러한 기법을 매우 치밀하게 사용하고 있다. 시내산 언약의 시작 때부터 발생한 모세의 ‘산 위로 올라감’과 ‘산 아래로 내려감’의 동작 표현은 거룩함의 거리감을 더욱더 독자들에게 부각시킨다. 이는 황금 송아지 배교 사건 이전부터 시작된 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변되는 모든 인간 존재 안의 죄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33장 7-11절의 텍스트는 산 위와 산 아래의 가시적 장소의 구분으로 계속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주시시켰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관계적 거리의 발생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주제적 긴밀성과 연결성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3. 화행론적 접근을 통한 분석 텍스트의 해석

세 번째 상호작용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전반부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상호작용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의 멀어짐은 7-11절의 장면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다시금 모세와 여호와의 상호작용이 시작된다(Figure 3 참조).

33장 12절부터 34장 9절까지는 모세와 여호와가 말차례를 각기 가지면서 직접화법의 형태를 통해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며 진행된다. 그리고 34장 1절부터는 여호와와 모세의 상호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제인 ‘돌판’으로 변화된다(‘두 개의 돌판’ : $\text{נְתִיבָה} : \text{נְתִיבָה}$). 이것이 34장부터 시작되는 언약 갱신에 관한 주제이다. 그러므로 33장까지의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모세의 중재적 역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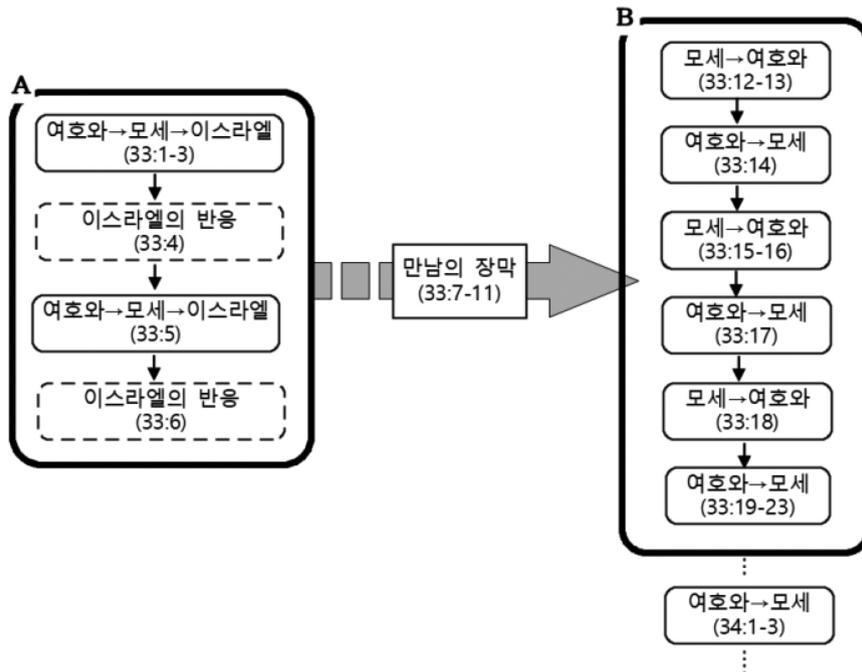


Figure 3. Analysis of Interaction in Exod 33:1-34:35

감당하는 의사소통 목적이 성공을 거두었음을 독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나아가 34장 10-27절은 언약의 갱신과 관련한 여호와의 말씀과 28절에는 새로운 돌판이 수여되는 장면을 내레이터가 보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배교에서 고조되었던 긴장과 갈등의 상황들이 해소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Table 6. Translation of Exodus 33:12-23

화자		발화 내용
모세	33:12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나 나와 함께 보내신 누군가를 당신이(נָתַן) 내가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OQtI). 그리고 또 너는 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xQtI).’
	33:13	그러므로 이제 만일 내가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부디 내가 당신의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이 족속이 당신의 백성임을 알도록,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33:14	그가 말씀하셨다. “나의 얼굴이 같 것이다(Yiqtol). 그래서 내가 너로 편하게 할 것이다.”
모세	33:15-16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했다. “만일 당신의 얼굴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여기로부터 올라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나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 당신이 걸으심이 아닙니까? 나와 당신의 백성을 그 지면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여호와	33:17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하는 이 일을 또한 내가 행할 것이다 (Yiqtol). 왜냐하면 나의 눈에서 은혜를 네가 발견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모세	33:18	그러자 그가 말했다. “부디 당신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	33:19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모든 나의 선함을 너의 얼굴 위에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의 얼굴을 향해 선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또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33:20	또 그가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얼굴을 보는 것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וְנִשְׁכַּח עֵינָיו 생략으로 볼 경우) 그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33:21-23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목하라. 너의 곁에 한 장소가 있다. 그리고 너는 그 바위 위에 서 있을 것이다. 또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바위의 틈(갈라진 틈)에 둘 것이다.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가 너를 나의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손을 치울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발화는 간접 화행의 치밀한 고도의 전략이 사용되었다(Table 7 참조). 12절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33:1)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하나님의 명령 화행(1-3절)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속 행동을 요청하였지만, 모세는 갑자기 2절 발화(“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낼 것이다.”)의 명제 내용 조건에 대한 세부 정보를 간접 화행을 사용하여 공손하게 요청한다(33:12). 모세는 명시적인 주어(‘당신’: אַתָּה)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정보를 말씀하시기를 간접적으로 요청한다(“나와 함께 보내신 누군가를 당신이 내가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וְנִשְׁכַּח עֵינָיו אֶת אֲשֶׁר-רָשַׁלְתָּ עִמָּי). 즉, 모세는 ‘나와 함께 갈 누군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 화행은 화행이 연속될수록 직접 화행의 Cohortative 서법으로 바뀌면서(13절: “부디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וְנִשְׁכַּח עֵינָיו) 요청의 내용이 변경된 것처럼 보인다. 12절에서는 동행하는 ‘누군가’에 대한 정보의 요청이었다면 13절에서는 ‘당신의 길(즉, 여호와의 행로)’에 대한 정보의 요청으로 바뀐 것처럼 일견 보인다. 그러나 모세가 대화 참여자로서 대화 격률(maxims of conversation)을 지키며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모세의 12절의 진술 화행은 동행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이신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요청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접 화행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간접 화행을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밀한 설득 전략을 엿볼 수 있다.

Table 7. Strategies in Moses' utterances (Exod 33:12-18)

화행	발화 내용	화행 전략	기능
진술화행 (33:12)	(그 땅으로 가는 행위를 명령하셨으나) 나와 함께 당신이 보내신 <u>누군가</u> 를 내가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이전 발화 언급, 간접 화행 사용	요청
연결화행 (33:12)	하나님의 이전 발화 언급 1)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0QtI) 2) 너는 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xQtI)	상대의 이전 발화 언급	요청의 기반
명령화행 (33:13)	당신의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1) 내가 당신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2) 이 족속이 당신의 백성임을 알도록	담화표지 ⁷ 사용, 연결화행(12절) 활용, 대화 함축	요청
↓			
여호와의 반응 (33:14)			
↓			
명령화행 (33:15-16)	발화 1 (15절): 주화행 함께하지 않으시면 올라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발화 2 (16절): 보조화행 자문: 은혜를 찾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자답: 나와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걸으심이 아닙니까? 나와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발화 1: 대화 함축 조건명령문 형식을 사용한 요청 발화 2: 발화수반력 조정 주화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자답 형식. 자답에서 부정 의문문 사용으로 강조	요청 근거 제시
↓			
여호와의 반응 (33:17)			
↓			
명령화행 (33:18)	부디 당신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특정 대화 함축	요청
↓			
여호와의 반응 (33:19-23)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간접 화행에서 직접 화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결 화행으로 하나님의 이전 발화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이전 발화의 명제로 0QtI, xQtI 형식의 사실 기술 방식을 모세가 연결 화행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발화는 언제나 사실이라는 것을 발화자 모세가 히브리어 문장 형식으로 더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

씀의 사실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근거하여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셨다는 사실(xQtI)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가 요청하는 기반이 된다. 한편 13절에서는 여호와와의 눈 안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들이 당신의 백성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동행’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3절을 잘 살펴보면 모세가 의도적으로 12절의 내용을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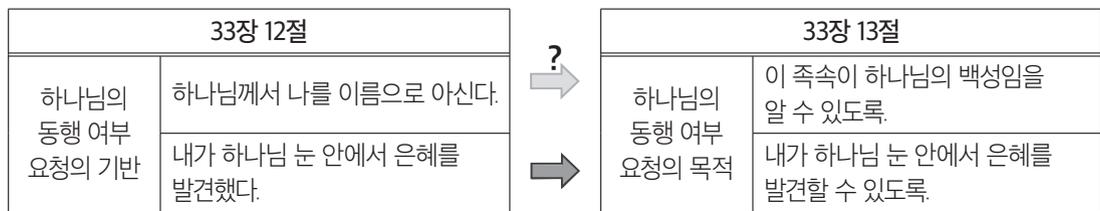


Figure 4. Differences between verse 12 and 13

13절의 ‘그러므로’라는 접속부사는 모세 요청 행위의 기반이 앞 문장 즉, 12절임을 보여 준다. 12절에서 하나님의 동행 여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의 기반은 하나님의 이전 발화를 직접 인용한 것이다. 12절의 요청의 기반이 13절에서는 요청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은 ‘동행 여부를 알려 주시는 행위’가 곧 하나님의 발화인 요청 기반 내용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때 13절에서 하나님의 동행 여부를 아는 첫 번째 목적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이 되어야 하지만 모세는 그 내용을 바꾸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떠한 개연성을 가지고 내용을 바꾸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름을 아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그것을 지배하는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De Vaux, 1997:43).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 아시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세가 13절에서 바꾼 내용은 주어 자리의 ‘모세’를 ‘이스라엘’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을 준수함과 동시에 12절의 발화 내용과 모순이 되지 않으면서 13절의 요청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모세가 선택한 논리는 ‘대표성의 원리’이다.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3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전략을 사용한 요청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더욱 강력한 이유는 그의 주장의 기반이 바

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여호와와의 반응은 당신께서 가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약속 화행이었다(14절 Yiqtol 형식, “나의 얼굴이 같 것이다”: $\text{וְאֶפְסֹתַי כְּאַפְסֹתַיְכֶם}$). 그럼에도 모세는 거듭하여 15,16절에서 동행을 요청한다. 여기서 모세가 사용하는 첫 번째 전략은 관계성의 주체 전환과 은혜의 대상의 전환이다. 모세가 12절에서 하나님을 설득하였을 때의 전제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성에 기초하여 은혜의 대상에 자신을 넣었다면, 13,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시킨)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넓히면서 그 은혜의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장시킨다(15절).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은혜의 대상이 확장되는 것이다(대표성의 원리). 그리고 16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나타난다(16절). 32장 3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자신을 규정하였다면, 33장 12절부터는 자신 안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집어넣음으로써 논리의 역을 성립시킨다(*vice versa*).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자리매김이었던 ‘이 백성’, ‘너의 백성’이라는 재수용 표현을 ‘당신(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세는 재(再) 자리매김함으로써 새로운 관계성의 수용을 대담하게 요청한다. 모세가 사용한 두 번째 전략은 문장 형식에 변화를 주면서 발화수반력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15절의 모세의 첫 발화는 조건문인 선행문장과 명령문인 후행문장으로 이루어진 조건 명령문이다(“만일 당신의 얼굴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여기로부터 올라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앞으로 실현될지도 모르는 가정 조건하에 명령문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명령 화행의 하위 화행으로서 지시의 기능은 약화된 화행으로 보아야 한다⁹. 그러므로 모세의 발화는 ‘우리와 함께 여기로부터 올라가 주십시오’라는 공손한 요청 행위를 함으로써 명령이 아닌 요청으로 전환시켜 상대의 부담을 완화한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요청 행위의 근거로서 일종의 자문 자답형의 의문문을 사용한다. 자문자답 형식은 일반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15절의 첫 번째 발화가 주화행으로 요청 행위였다면 두 번째 발화인 16절은 요청 행위의 근거를 제시하는 효과를 갖는다. 여기서 모세는 다시 자답의 형식을 강조의 기능을 갖는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여 발화 수반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요청의 행위를 극대화하였다.

모세의 전략적 호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목적어 명사구(‘네가 말하는 이 일을’)를 먼저 문장 앞에 놓음으로써 바로 ‘그 일(הַדָּבָר)’을 행하실 것을 수행 동사를 사용하여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계신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18절에서의 모세의 요청 행위는 난해하다고 꼽히는 장면

9) 이지수(2016)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조건 명령문은 ‘유사 명령문(pseudo-imperative)’이라고 불리는데, 명령문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화행 가운데 조건 명령문은 지시의 힘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범언어적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조건 명령문이 수행하는 화행이 지시 화행인지 진술 화행인지에 대한 논의는 언어학자들의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반적으로는 조건 명령문은 지시 화행의 기능이 거의 약화된 것으로 본다.

중의 하나이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것임에 대한 의지 표명을 이미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20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살아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현현의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즉, 현현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모세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단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단서는 맥락 정보이다. 모세의 이전 발화 내용인 33장 12-13절, 15-16절을 살펴보면 그의 요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동행하실지 여부가 주안점이었다. 그렇다면 18절의 요청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모세의 발화에 나타난 언어 단서이다. 보기를 요청하는 ‘대상’에 대한 모세의 인식에 접근해 봄으로써 발화 의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현현(theophany)은 구약성경에서 그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모세는 삶 속에서 현현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 왔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현현을 처음 경험한 사건은 이후의 현현 사건들의 계기적 사건이자 정초적 사건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며 당신께서 모세와 함께 계실 것인데 이것이 그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관한 증표(nisḥ)라고 말씀하셨다(출 3:12).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의 증표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이다. 모세의 입장에서 재진술하면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소명을 주신 사건이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사건이다. 모세는 이를 통하여 소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으며,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알았다. 그것은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밝히시듯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현현’인 가시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모세가 경험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임에 대한 확실한 증표(nisḥ)가 된다. 이것은 첫 번째 단서인 이스라엘과의 동행 여부를 알려달라는 지금까지의 모세의 발화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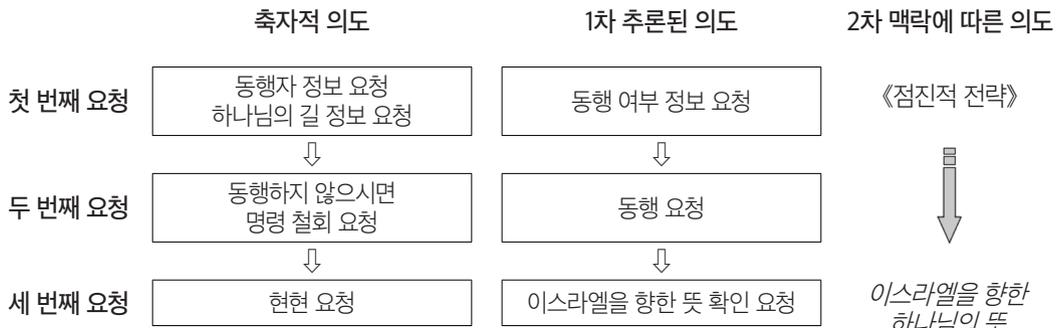


Figure 5. Request strategies by Moses in Exod 33:12-18

과도 상통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다면 33장 12절부터 이루어진 모세의 요청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Figure 5 참조). 모세의 화행을 분석해 보면 간접 화행을 사용함으로써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대의 부담감을 덜려는 전략, 상대 중심적인(hearer-oriented) 요청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며 요청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자 하는 전략 등의 다양한 방식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텍스트를 난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각각의 요청 내용이 서로 달라 보인다는 점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요청 내용 정보로부터 1차적으로 발화의 의도 추론 과정 다음에 다시 맥락에 따라 2차로 정제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모세의 세 번에 걸친 요청의 원래 의도가 드러난다. 1차적인 과정으로서 ‘추론된 의도’라 함은 언어의 보편적이고 관습화된 방식대로 해당되는 문맥 정보를 통해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고, 2차적인 과정으로서 ‘맥락에 따른 의도’라 함은 추론에 있어서 보다 넓은 맥락상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단서와 배경 지식을 요하는 보다 복잡한 의도 추론 과정이다. 이처럼 해당 텍스트의 이해에 있어서 난해함을 유발하였던 원인은 제한된 발화 안에서 모세가 다양한 전략을 치밀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수신자인 독자들의 편에서는 해석의 부담감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세의 요청 행위는 주변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원래 의도하였던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단계별로 점진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궁극적인 의도는 마지막 요청 행위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요청 행위는 특정 대화 함축을 사용함으로써 요청의 진의를 해석하기 위해서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맥락적 지식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해석의 과정이 소통에서 요구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셨다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현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모세와 독자들은 알게 되고 나아가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함의하는 것이므로 드디어 34장부터 본격적인 언약 갱신의 장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IV. 나가기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텍스트는 언약 체결 이후의 첫 파기라는 역사적 선례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황금 송아지 사건은 다양한 구약성경 저자들에게 신학적 통찰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신약성경 저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신학적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본문의 난해한 구절

로 인하여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경에서 맥락의 흐름상 난해한 장면이라고 꼽히는 구절인 출애굽기 33장 12-23절 텍스트의 화행론적 접근을 통하여 본문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화행론적 분석의 결과 모세가 하나님께 거듭하여 요청을 하였던 이유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치밀한 전략들에서 드러났다. 그는 요청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이전 발화 언급, 다양한 문장 형식을 이용한 간접 화행을 사용하면서 공손함을 드러내고 단계적으로 자신의 발화의 의도를 드러내어 요청한 바를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그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기반이 되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말씀하심’으로 시작한다. 이는 단순히 공기 입자들의 진동에 의한 물리적 차원이나 상대에게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적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를 생성시키고 존재하게 하는 힘으로서의 ‘말’이라는 구약성경의 히브리적 사유 체계를 담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도 화행론적 접근 방법은 성경 해석의 방법론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희석·강소라·기동연·김성진·김아윤·문은미·방정열·석진성·이희성·임용섭·정원석·조휘·최윤갑 역 (2017). **성경신학적 구약개론**. Van Pelt, M. V. (2016). *A Biblical-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서울: 부흥과 개혁사.
- [Kim, H. S., Kang, S. R., Ki, D. Y., Kim, S. J., Kim, A. Y., Moon, E. M., Bang, J. Y., Suck, J. S., Lee, H. S., Lim, Y. S., Jung, W. S., Cho, H. & Choi, Y. G. (2017). *A Biblical-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Seoul: Revival & Reformed Press. Trans. Van Pelt, M. V. (2016). *A Biblical-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llinois: Crossway.]
- 길성남 역 (2016).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제2판). Fee, G. D. & Stuart, D. K. (2001). *How to Read the Bible Book by Book*. 서울: 성서유니온.
- [Gil, S. N. (2007). *How to Read the Bible Book by Book*. (2nd ed.). Seoul: Scripture Union Korea. Trans. Fee, G. D. & Stuart, D. K. (2001). *How to Read the Bible Book by Book*. Nashville: Zondervan.]
- 김대웅 (2016).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에 관한 성경 내적 해석. **Canon & Culture**, 10(2), 185-218.
- [Kim, D. W. (2016). Inner-Biblical Interpretation of the Golden Calf Narratives. *Canon & Culture*, 10(2), 185-218.]
- 김영진 역 (1977). **말과 행위**.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경기도: 서광사.
- [Kim, Y. J. (1977). *How to Do Things with Words*. Gyeonggido: Seokwangsa. Trans.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류호영 역 (1997). **성경해석학 총론**. Klein, W. W., Blomberg, C. L. & Hubbard, R. L. (1993).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서울: 생명의 말씀사.
- [Ryu, H. Y. (1997).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Seoul: Lifebook. Trans. Klein, W. W., Blomberg, C. L. & Hubbard, R. L. (1993).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Nashville: Word Inc.]
- 박경식 (2018). 금송아지 본문(출32-34장)에 대한 최근 연구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0, 7-35.
- [Park, K. S. (2018). A Critical Analysis of the Most Recent Scholarship on the Golden Calf Episode(Exodus 32-34).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110, 7-35.]
- 박문재 역 (2005). **구약신학: 그 역사, 방법론, 메시지**. Smith, R. L. (1993). *Old Testament Theology: its history, method and message*.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Park, M. J. (2005). *Old Testament Theology: its history, method and message*. Goyang:

- Christian Digest. Trans. Smith, R. L. (1993). *Old Testament Theology: its history, method and message*. Nashville: Broadman & Holman.]
- 박용익 (2001). **대화분석론**. 서울: 역락.
- [Park, Y. I. (2001). *Discourse Analysis*. Seoul: Youkrack.]
- 배정훈 (2004). 출애굽기에 나타난 회복의 원리. **기독교사상**, 540, 254-261.
- [Pae, C. H. (2004). Principles of Recovery in Exodus. *The Christian Thoughts*, 540, 254-261.]
- 배정훈 (2011). 출애굽기 33:7-11에 나타난 회막전승. **장신논단**, 43, 13-33.
- [Pae, C. H. (2011). The Tent of Meeting Tradition in Exodus 33:7-11.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3, 13-33.]
- 박철현 (2014). **출애굽기 산책**. 서울: 솔로몬.
- [Park, C. H. (2014). *Walking Through Exodus*. Seoul: Solomon.]
- 손석태·채천석 역 (2000). **WBC 성경주석: 출애굽**. Durhan, J. I. (1987). *Word Biblical Commentary: Exodus*. 서울: 솔로몬.
- [Son, S. T. & Chae, C. S. (2000), *Word Biblical Commentary: Exodus*. Seoul: Solomon. Trans. Durhan, J. I. (1987). *Word Biblical Commentary: Exodus*. Nashville: Zondervan.]
- 신승환 (2012). 히브리적 사유의 특성과 의미. **동서사상**, 13, 43-64.
- [Shin, S. H. (2012). The Character and Meaning of the hebraistic Thought. *Journal of East-West thought*, 13, 43-64.]
- 이성범 역 (1996), **화용론**. Mey, J. L. (2001). *Pragmatics: An Introduction*. 서울: 한신문화사.
- [Lee, S. B. (1996). *Pragmatics: An Introduction*. Seoul: Hanshin. Trans. Mey, J. L. (2001). *Pragmatics: An Introduction*. (2nd ed.). MA: Wiley-Blackwell.]
- 이승진·김정호·장도선 역 (2007). **구약의 내러티브 해석**. Richard L. & Pratt, Jr. (1993). *He gave us stories: The Bible student's guide to interpreting Old Testament narratives*.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Lee, S. J., Kim, J. H. & Jang, D. S. (2007). *He gave us stories: The Bible student's guide to interpreting Old Testament narratives*. Seoul: CLC Book. Trans. Richard L. & Pratt, Jr. (1993). *He gave us stories: The Bible student's guide to interpreting Old Testament narratives*. P&R Publishing Company.]
- 이지수 (2016). **한국어 명령문의 문법과 화행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Lee, S. J. (2016). *A Study on the Grammar and Speech Acts of Korean Imperative Sentence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장경희 (1998). 화행의미론, **한국어 의미학**, 2, 41-56.

- [Jang, K. H. (1998). Speech Act Theoretic Semantics. *Korean Semantics*. 2, 41-56.]
- 지주호 (2003). 설득커뮤니케이션과 수사학. **독일학 연구**, 19, 137-164.
- [Ji, J. H. (2003). Persuasive communication and rhetoric. *Specialist journal for German Studies*, 19, 137-164.]
- 한동구 (2016). 시내산 예배의 신학적 의미(출 24:9-11). **신학논단**, 84, 223-249.
- [Han, D. G. (2016). The Worship at Mount Sinai and It's Theological Interpretation(Exodus 24:9-11). *Theological Forum*, 84, 223-249.]
- 허혁 역 (1975). **히브리적 사상과 그리스적 사상의 비교**. Boman, T. (1970). *Hebrew Thought Compared with Greek*. 서울: 분도출판사.
- [Heo, H. (1975). *Hebrew Thought Compared with Greek*. Seoul: Bundobook. Trans. Boman, T. (1970). *Hebrew Thought Compared with Greek*. NewYork: W. W. Norton & Company.]
- De Vaux, R. (1997).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ruction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 Joo, S. (2006). *Provocation and Punishment: The Anger of God in the Book of Jeremiah and Theology*((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361). Berlin: Walter de Gruyter.
-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Brien, M. A. (2012). The Dynamics of the Golden Calf Story(Exodus 32-34.) *Australian Biblical Review*, 60, 18-31.
- Widmer, M. (2004). *Moses, God and the Dynamics of Intercessory Prayer: A Study of Exodus 32-34 and Numbers 13-14*. Tübingen: Mohr Siebeck.
- Zolli, I. (1939). The Ornament "From Mount Horeb(Ex. 33.6). *The Jewish Quarterly Review New Series*, 30(1), 71-75.

성경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의 화행론적 접근 -출애굽기 33:12-23과 관련하여

A Speech-act Theoretic Approach to Biblical Interpretation - The Text of Exodus 33:12-23

김상아 (한양대학교)

논문초록

본고에서는 성경의 난해 구절과 관련하여 언어학적 접근을 통하여 성경 해석의 방법론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출애굽기는 등장인물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이를 통하여 전개되는 사건들이 주를 이루는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므로 언어적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난해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출애굽기 33장 12-23절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아 화행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분석한 결과 해당 구절들의 난해함이 유발되었던 이유는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요청 전략 때문이었다. 모세는 발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치밀한 요청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의지를 언급하는 것과 다양한 문장 형식을 통한 간접 화행의 사용, 특정 대화 함축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모세의 요청 행위는 치밀한 전략 가운데 단계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출애굽기의 난해 구절, 성경 해석, 언어학적 접근